



전주시민축구단은 오는 17일 오후 4시 전주종합운동장에서 2023 K리그 16라운드 고양해피니스축구단과 홈경기를 갖는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노원 유니타리티FC와의 경기에서 전주시민축구단이 골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주 시민축구단, 내일 고양해피니스와 경기

홈 경기 첫 승 노린다

상위권 진입 위해 승리 절실 다채로운 공격 선술 선보여

전주 시민축구단은 오는 17일 오후 4시 전주종합운동장에서 2023 K리그 16라운드 고양해피니스축구단과 홈경기를 갖는다. 현재 3승 6무 5패로 11위를 달리고 있는 전주 시민축구단은 홈경기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3승 3무 1패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홈에서는 3무 4패로 아직까지 승리가 없다. 전주는 이날 승리를 거두 홈 첫 승과 함께 상위권 진입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전주는 이날 홈경기에서 다양한 공격 전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격에서 김도형과 박성혁이 상대 골문을 향해 막강 화력을 선보이고, 중원에서는 양태열과 용원빈, 신윤호,

박광윤이 상대 공격을 차단함과 동시에 공격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또 수비에서는 심원성과 김창수, 장경호, 이요셉이 상대 공격을 차단하고, 골문은 최진백이 지킨다. 양영철 감독은 "아직까지 홈에서 승리가 없다. 선수들과 함께 이번 경기에서 꼭 승리하겠다"면서 "홈경기인 만큼 많은 골로 팬들께 재미와 감동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선수 변화 많지만 지속성 유지해야”

클린스만 감독 “아시아컵, 지금부터 경쟁
오늘 오후 8시 부산서 페루와 평가전



위르겐 클린스만(독일·사진) 축구대표팀 감독이 큰 폭의 선수 구성 변화에도 경기력 지속성을 유지하는 게 대표팀에선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페루와 경기를 하루 앞둔 15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대표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속성이라고 생각한다. 1년에 몇 차례밖에 A매치를 하지 않지만 계속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페루와 평가전을 앞두고 클린스만은 여러 악재가 겹쳤다. 핵심 중앙 수비수 김민재(나폴리), 김영권(울산)은 각각 기초군사훈련과 부상으로 빠졌고, 간판 공격수 손흥민(토트넘)마저 스포츠 탈장 수술로 출전이 불투명하다. 클린스만 감독은 “몇몇 선수들이 합류하지 못했다. 김민재는 군사용린 때문에 (수술을 받은) 손흥민은 아직 100% 몸 상태가 아니다. 부상으로 빠진 선수도 여럿”이라면서도 “그동안 함께 한 선수들 경험 많은 선수들의 리더십을 통해 지속성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센터백 2명이 모두 합류하지 못한 수비 라인의 변화가 큰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선발했던 권경원(김보 오카사)마저 부상 때문에 뒤늦게 명단에서 제외됐다. 클린스만 감독은 새로운 얼굴들에게 기대를 걸었다. 그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많았다. 그런데 이걸 (그들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이기도 하다”며 “새롭게

대표팀에 온 선수들이 자신의 장점, 경기력으로 증명하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과 K리그 등을 직접 봤다. 원두재는 K리그(2부) 김천 상무 경기에서, 박지수는 포르투갈 리구에서 뛰는 걸 봤다”며 “기존 선수나 새로운 선수나 모두 경쟁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내년 카타르 아시아컵까지 7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부터 경쟁이다. 손흥민, 김민재처럼 대체 불가능한 세계적인 선수들은 아니겠지만 새 선수들은 기회를 잘 잡았으면 한다”며 “대표팀 명단은 언제 바뀔지 모른다. 열정을 보여달라”고 했다. 처음 A대표팀에 발탁된 박규현(다나모 드레스덴), 홍현석(헨트), 안현백(제주) 등의 출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스포츠 탈장 수술을 받은 손흥민에 대해선 “아직 100% 몸 상태가 아니다”라며 “벤치에서 함께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매일 좋아지고 있다. 시즌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보다 많이 좋아졌다”며 “조금이라도 뛰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오늘과 내일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대안으로 황희찬(울버햄튼)과 오현규(셀틱)를 주목했다. 그는 “3월

에는 함께 하지 못했지만 황희찬이 돌아왔다. 소속팀 울버햄튼에서 출전 시간이 길지 않았지만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오현규에 대해선 “허린 선수가 스코틀랜드에서 트레블(3개 대회 우승)을 하고 왔다. A매치 경험이 3경기에 불과하지만 성장세에 있다. 3월 A매치에선 쉬소했지만 골도 넣었다”며 “현재나 앞으로나 플랜B, 플랜C를 마련해 지속적인 경기력을 유지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3월 한국 사령탑 데뷔 무대에서 콜롬비아(2-2 무), 우루과이(1-2 패)를 상대로 1무패를 기록했던 클린스만 감독은 부임 첫 승에 도전한다. 당시 클린스만 감독은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의 주역들을 주축으로 선수단을 꾸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해외파와 K리그를 두루 살펴 자신이 추구하는 스타일에 어울릴만한 선수들을 선택했다. “진짜 클린스만호 1기”로 불린다. 클린스만 감독은 “페루는 상당히 좋은 팀이다. 우리를 몹시 불편하게 할 것이다. 어려운 경기가 예상된다”며 “좋은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일 경기를 잘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페루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1위로 한국(27위)보다 높다. 역대 상대전적은 2전 1무1패로 열세다. 한편, 클린스만 감독은 기초군사훈련에 입소한 김민재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앞서 문자를 보냈다. 행운을 빌다고 했다. 나도 18살 때, 군생활을 했다. 그때는 우리도 의무였다”며 “(김민재에게)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다. 가서 잘하고 건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뉴스

전개공 여자육상팀, 올 시즌 상승세

나주 개최 실업육상선수권
1600m 결승전서 '금메달'
400m 허들 결승서 2위도



전북개발공사 여자 육상팀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나주종합스포츠장에서 열린 '제27회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

전북개발공사 여자 육상팀이 제27회 나주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여자부 1600m 계주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올 시즌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나주종합스포츠장에서 열린 '제27회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회 여자부 1600m 결승에서 전북개발공사는 3분49초38의 기록으로 2위 김포시청(3분50초90)과 3위 인천남동구청(4분4초43)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예영, 김지은, 노지현, 장세빈 순으로 이어 달린 전북개발공사는 지난해 1600m 계주에서 금4, 은1 등 총 5개 메달을 차지한 데 이어 올해도 금빛사냥을 이어갔다. 한편 전남 열린 이 대회 여자 400m

허들 결승에서는 전북개발공사 노지현 선수가 구미시청 손경미 선수(59초77)에 이어 1분01초01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따냈다.

전북개발공사 여자육상단은 지난 시즌 전국체류대회를 포함해 총 2회(금15, 은4, 동2) 입상이라는 사상 최고의 성적을 달성한 바 있다. /김욱기 기자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 22~25일 부안서

전북도는 22일부터 25일까지 부안군 격포항 및 새만금 일대에서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가 열린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8회를 맞은 국제요트대회는 한국, 태국, 우즈베크, 베트남, 중국, 덴마크, 영국, 미국, 인도 등 9개국, 요트 30척, 선수 2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선수들은 격포항에서 서쪽으로 위도 주변까지 돌아오는 인쇼어(INSHORE) 코스와 격포항으로부터 새만금방조제 주변까지 돌아오는 오프쇼어(OFFSHORE) 코스 등 서해안 바다를 누리며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줄 예정이다. 도는 대회 참가선수 및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운영요원 및 선수 안전교육 실시, 구명조끼 착용, 구조정 및 안전요원 해상배치, 구조장비 및 비상약품 비치, 인파사고 예방 등 관련 유관기관(해경, 경찰, 소방)과 협조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대회는 22일 요트계류장을 개방해 선박계류를 시작으로, 23일은 사전연습경기와 국내·외 요트인 국제 교류의 밤 행사가 열린다. 24일과 25일에는 본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24일 오후 6시에는 소노벨 변산 리조트에서 출전선수단과 임원 대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이 열리고, 25일 오후 5시에는 시상식과 폐회식이 치러진다. /김재훈 기자·부안=김석진 기자



그 외에도 대회기간 동안 사진촬영 이벤트와 해양레저스포츠 체험행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준비돼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 관람객들은 격포항 남측 방파제에 설치된 관람석뿐만 아니라 관람정에 승선해 요트 레이스를 바다 위에서 관전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부안=김석진 기자

2023 민간문화시설 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

문화공간이룸
개관 5주년 기념 콘서트

신박듀오

Maurice Ravel
Gabriel Fauré
C. Saint-Saëns
Georges Bizet

2023. 6. 24(토)
5:00pm

문화공간이룸
ART SPACE

주최·주관 | 새만금문화재단
후원 | 새만금문화재단, 새만금문화재단, 새만금문화재단
기획 | 이윤정
티켓 | 인터무브
문의 | 카카오톡 채널 '문화공간이룸'
1:1 문의 063)223-5323